지식경제부 보도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**2013년 1월 4일(금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전윤종 투자유치과장(02-2110-5361), 박성우 서기관(5363), 김시덕 주무관(5362)

# '12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실적, 사상 최대

◇ **규모 : 신고는 162.6억불(史上 최대), 도착은 103.8억불(99년 이후 최대)**
◇ **효과 : 향후 3년이내 직·간접 고용 10만여명 창출**

## < 요 약 >

**1 (실적 종합) :** '12년 외국인직접투자(FDI, 신고기준)는 전년(136.7억불) 대비 18.9% 증가한 162.6억불로 史上 最大 실적

※ 미국 37억불(55%증), 일본 45억불(98%증), 중화 40억불(107%증), EU 27억불(47%감)

○ 도착금액(잠정)은 전년(65.8억불) 대비 57.8% 증가한 103.8억불

**2 (최대실적 달성요인)**

○ 美-EU FTA발효,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한국경제 신뢰도 상승
○ 日 부품소재기업의 투자 및 중화권 관광분야 투자가 급증
○ 외투기업 친화적 투자환경개선 및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의 확대

**3 (최대실적 경제적의의)**

○ 향후 3년이내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10만여명의 일자리 창출
○ 소재분야 등 밸류체인의 취약부문 보완을 통한 우리산업 경쟁력 제고
○ 외국인투자가 과거 10년간의 정체기를 지나 본격적인 확대 기조로 전환

**4 (2013년도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)**

○ 2013년도 외국인투자는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(신고 150억불, 도착 80억불)에 머무를 전망

○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를 유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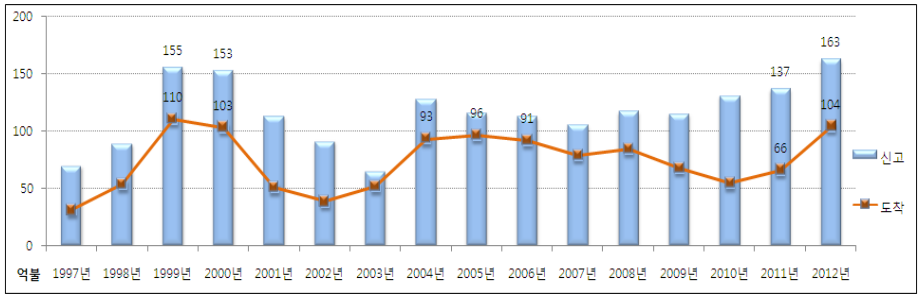
## 1. 전반적인 동향

□ **(실적)** '12년 외국인직접투자(FDI, 신고기준)는 전년(136.7억불) 대비 18.9% 증가한 162.6억불로 史上 最大 실적

○ 도착금액(잠정)은 전년(65.8억불) 대비 57.8% 증가한 103.8억불로써 99년이후 최대치이며, 사상 2번째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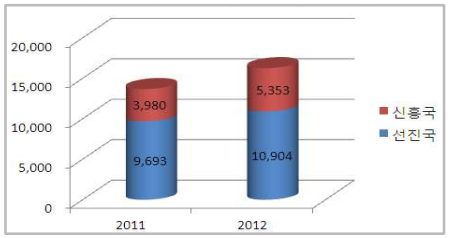
※ FDI 신고추이(억불) : ('97) 69.7 → **('99) 155.4** → ('00) 152.6 → ('11) 136.7 → **('12) 162.6**
FDI 도착추이(억불) : **('99) 110.2** → **('00) 102.8** → ('04) 92.9 → ('05) 96.2 → **('12) 103.8**

**< 연도별 외국인투자 추이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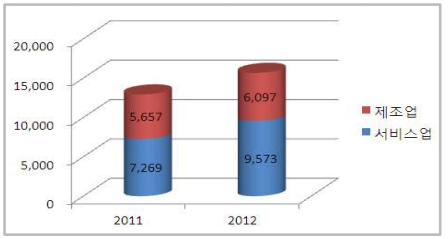



□ **(특징) ①신흥국 ②서비스업 ③M&A형 ④신규 투자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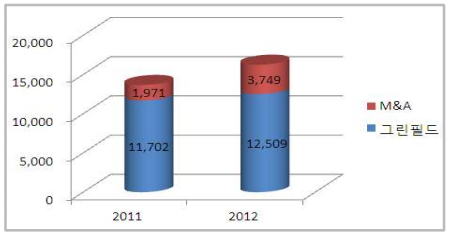
**< 국가별 투자 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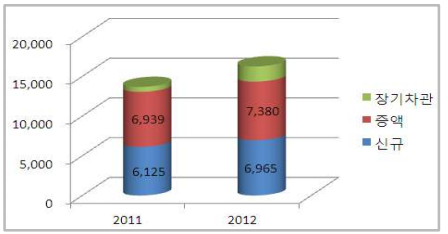

**< 업종별 투자 >**




**< 유형별 투자 >**




**< 형태별 투자 >**



○ **(국가별)** 선진국(12.5%↑)·**신흥국(34.5%↑)** 모두 증가

- 美(54.9%↑)·日(98.4%↑) 등 선진국과 중화권(107%↑) 투자 증가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7.8%↑)·**서비스업(31.7%↑)** 모두 증가

- 운송용기계, 비즈니스서비스, 금융·보험 분야 투자 증가

○ **(유형별) M&A형(90.2%↑)**·그린필드형(6.9%↑) 모두 증가

- 신규 공장, 사업장 설립 등 **고용창출**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

○ **(형태별) 신규(13.7%↑)**·증액(6.3%↑)·장기차관(214%↑) 모두 증가

□ **(증가 요인)** FTA 효과,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,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고 실적 달성

① 美·EU와의 FTA발효, 국가신용등급 상승, 원화가치 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도 상승

* S&P, Moody's, Fitch 등 3대 신용평가사,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+, Aa3, AA- 로 한 등급씩 상향조정 ('12.8~9월)

※ Doing Business 2013(World Bank) : 한국의 기업환경지수는 185개국 중 8위

② 엔고 등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확대 움직임으로 對韓투자 대폭 증가(98.4%↑)*, 중화권(106.6%↑)의 관광·레저분야 투자**가 대폭 증가

* (日) NEG(2.6억불, 디슬플레이 소재), JX일광일석(4.4억불, 석유화학제품) 등

** (中) B社(1억불, 제주 리조트), K社(5천만불, 지역개발) 등

③ FTA 효과의 전략적 활용,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*, 투자환경 개선** 및 지원노력 강화

* (日) 임대형 입지공급확대, (中) 관광·레저분야 투자유치, (美) FTA를 활용한 동북아 거점형·지식서비스분야 투자유치 확대

**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 실현 : U社(8.3억불), T사(5억불) 등

※ '12년 해외투자유치활동(IR) : ('11) 12건 → ('12) 17건, 전년比 42%↑



## 2. 최대 실적 달성의 의미

### 1 향후 3년이내 최대 10만여명의 대규모 고용 효과가 발생

○ 최근 국내투자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확대로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과 경기활성화가 기대

* FDI 도착금액 103.8억불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(직·간접효과 포함)를 적용하여 추산

**< 주요 업종별 일자리 효과 >**

| 업 종 | 도착금액*(백만불) | 고용효과(명) |
|---|---|---|
| **제조업** | **4,117** | **26,686** |
| 화공 | 1,106 | 5,563 |
| 전기·전자 | 884 | 4,824 |
| **서비스업** | **6,162** | **74,076** |
| 금융·보험 | 2,211 | 20,049 |
| 비즈니스서비스 | 2,048 | 29,142 |
| **기 타** | **97** | **387** |
| **전 체** | **10,376** | **101,148** |

* M&A 37억불 포함, 환율 1,070원/불('12.12.28)

### 2 소재분야등 밸류체인의 취약부문 보완을 통한 우리산업 경쟁력 제고

○ 우리경제 밸류체인의 취약한 부분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완하여 국내완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, 수입대체, 수출증대 및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

* 부품소재 : 스미토모화학(고순도 알루미나), TOK(포토레지스트 소재), 알버말(조촉매), 보쉬(자동차 부품) 등

** 후공정 및 테스팅 : ASE(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팅), 아드반테스트(반도체 테스팅 장비) 등

### 3 외국인투자가 10년의 정체기를 지나 본격적인 확대 기조로 전환

○ IMF이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FDI가 2000년대의 정체상태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으로 확대*됨에 따라, FDI의 규모에 걸 맞는 고용창출 등 질적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** 필요

* (1990년대 후반) 150억불대 → (2000년대) 100~130억불 → (2010년대) 130~160억불

** FDI 유치정책도 **일자리 창출, 창조경제 견인**에 주안점을 두고 전환할 필요

## 3. 주요 국가별 FDI 동향

### 1 일본 : 전년(2,289백만불)대비 98.4% 증가한 4,541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68.0%↑) 및 서비스업(142.9%↑) 모두 대폭 증가

| 구 분 | 11년 | 12년 | 증감률 |
|---|---|---|---|
| **일본 전체** | **2,289** | **4,541** | **98.4** |
| 제조업 | 1,265 | 2,125 | 68.0 |
| 화공 | 657 | 921 | 40.2 |
| 비금속광물 | 110 | 344 | 213.2 |
| 기계 · 장비 | 101 | 155 | 54.6 |
| 전기 · 전자 | 256 | 488 | 90.9 |
| 서비스업 | 995 | 2,416 | 142.9 |

○ **(유형별)** M&A형(427.3%↑) 및 그린필드형(52.5%↑) 모두 대폭 증가

**< 주요 투자 사례 >**

◈ **취약한 소재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전지 및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을 완결**

○ **(스미토모화학) FDI 30백만불 – 고순도 알루미나 제조**

– 일본으로부터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고순도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공장을 국내에 신규로 설립하여, 해당기술의 기술이전효과, 수입대체 효과 및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○ **(TOK) FDI 100백만불 – 포토레지스트 소재 제조**

–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독점적 기술을 가진 일본기업이 국내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여,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소재 공급으로 국내 반도체·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◈ **대규모 투자,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견인**

○ **(아드반테스트) FDI 43백만불, 432명 고용창출 – 반도체테스트장비 제조**

–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對韓투자로 기술이전, 수입대체효과 및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○ **(JX일광일석) FDI 422백만불, 84명 고용창출 – 파라자일렌 제조**

– 원료내 독성물질제거 방법에 있어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국내 관련 부문의 생산기술·연구개발 수준 향상과 수출 증대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

### 2 미국 : 전년(2,372백만불)대비 54.9% 증가한 3,674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65.2%↑) 크게 증가, 서비스업(6.2%↑) 증가

○ **(유형별)** M&A형(245.4%↑) 크게 증가, 그린필드형(46.5%↑) 증가

**< 주요 투자 사례 >**

◈ **취약한 소재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플라스틱산업 밸류체인을 완결**

○ **(알버말) FDI 42백만불 – 폴리올레핀 조촉매 제조**

– 기능성 플라스틱 제조에 필수적인 촉매를 만드는 조촉매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및 시험생산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관련기술의 이전효과 및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

◈ **대규모 투자,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견인**

○ **(코닝) FDI 102백만불, 534명 고용창출 – OLED용 유리기판 제조**

– OLED 제품시장이 빠른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, OLED용 유리기판 생산공법 중 우수한 기술인 新 Fusion 공법의 적용으로 국내 기술이전 효과 및 수출 효과 기대.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

○ **(굴드펌프) FDI 34백만불, 336명 고용창출 – 산업용 펌프 제조**

– 산업용 펌프 제조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초내식성 및 내마모성 제품 생산으로 관련 소재산업의 기술 이전 효과 및 전후방 산업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

### 3 중화권 : 전년(1,939백만불)대비 106.6% 증가한 4,006백만불

○ **(국가별)** 홍콩(192%↑)·싱가포르(130%↑)·중국(11.7%↑) 모두 증가

| 구 분 | 11년 | 12년 | 증감률 |
|---|---|---|---|
| **중화 전체** | **1,939** | **4,006** | **106.6** |
| 중 국 | 651 | 727 | 11.7 |
| 대 만 | 11 | 22 | 98.2 |
| 홍 콩* | 572 | 1,670 | 191.7 |
| 싱가포르* | 611 | 1,405 | 129.9 |
| 말레이시아 | 93 | 182 | 94.8 |

* 미국·일본기업의 투자가 홍콩·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투자하는 비중이 큼

○ **(업종별)** 지역개발 등 서비스업(122.2%↑) 크게 증가, 제조업(67.4%↑) 증가

* 서비스업 : ('11) 15.9억불 → ('12) 35.3억불, 122.2%↑

< 주요 투자 사례 >

◈ **대규모 투자,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견인**

○ **(대만 ASE) FDI 60백만불, 2,325명 고용창출 –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**

–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(패키징 및 테스트)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으로 2천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○ **(中 녹지그룹) FDI 99백만불 – 헬스케어타운 조성(총 3천여명 고용창출 효과)**

– 중국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국내 숙박·레저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 내 웰니스파크 개발에 투자할 계획(총 투자규모 8억불)으로 중국관광객 추가유입 및 지역발전에 기여

4 **EU :** 전년(5,032백만불)대비 46.6% 감소한 2,689백만불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(37.8%↓), 서비스업(44.2%↓) 모두 감소

○ **(유형별)** M&A형(100.9%↑) 증가, 그린필드형(70.8%↓) 감소

< 주요 투자 사례 >

◈ **취약한 부품소재부문 유치를 통해 자동차 및 전지산업 밸류체인을 완결**

○ **(獨 보쉬) FDI 44백만불 – 자동차부품 제조**

– 국내 기술이 전무한 EURO6 기준의 디젤연료분사시스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설립으로, 수입대체 및 관련기술 이전 효과가 기대되고,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 공급으로 선진국 수출 규제에 대응이 가능

○ **(벨기에 유미코아) FDI 65백만불 – 2차전지 원재료**

– 양극재료 전구체용 원료 및 양극재료 전구체는 전기자동차 및 2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로서, 기술이전·수입대체효과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◈ **대규모 투자,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견인**

○ **(英 쉘) FDI 115백만불, 53명 고용창출 – 윤활기유 제조**

–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윤활기유 제조분야 투자로, Shell이 보유한 관련기술의 이전효과 및 생산제품의 85%를 해외 수출할 계획으로 수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



## 4. '13년 외국인투자 전망

□ **(총평)** 2013년도 외국인투자는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(신고기준 150억불, 도착기준 80억불)에 머무를 전망

□ **(국가별)** 미국·중화권으로부터의 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나, 일본·EU로부터의 투자는 규모면에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

| 국 가 | 전 망 |
|---|---|
| 미국 | 한미 FTA 체결로 금융 및 서비스분야에서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상승하여 미국기업의 對韓투자는 견고하게 유지 전망 |
| 일본 | 지난해 엔고 등으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석유화학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중대형기업의 對韓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나, 금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규모면에서는 다소 감소 전망 |
| 중화권 | 중국, 일본 관광객의 급속 증가로 중국기업들이 관광레저 사업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,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분야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|
| EU |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對韓투자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, 금융·물류 등 서비스부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|

□ **(업종별)** 서비스업은 '1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제조업은 감소 전망

| 업종 | 분야 | 전 망 |
|---|---|---|
| 서비스업 | 금융·보험 | PEF(사모펀드)의 국내기업의 지분투자 및 M&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|
| | 부동산 | 관광객 증가로 관광·레저분야 투자 확대 전망 |
| | 비즈니스 서비스업 | 지주회사설립을 통한 국내기업 지분 투자 확대 전망 |
| 제조업 | 화학 |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,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OLED, LED 분야의 소재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|
| | 전기전자 | 반도체·디스플레이 관련 전자부품, 장비 투자는 소폭 감소 전망 |
| | 운송용기계 | 국내 자동차업체의 투자 축소로 자동차부품 분야의 투자는 위축 전망. 다만, 전장부품·자동차용 강재 기술 등 연구개발 투자 증가 전망 |

* 출처 : KOTRA IK, 「2013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과 전망」

## 4. 향후 정책 방향

◇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**'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유치'**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**'외국인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' 병행** 추진

### 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'대규모 프로젝트'의 조기 유치

1 글로벌 R&D센터, 복합리조트 등 관광·레져, IT 서비스 기업 등 **고용창출형 대규모 투자의 조기 실현을 위한 유치활동 강화**

2 외투전용공단 추가조성 등 **대규모 입지공급 확대** 및 부동산투자 이민제도* 등 **투자확대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**도 병행

* 높은 투자금액기준 및 대상 부동산의 휴양시설 한정 등으로 활성화 지연

### 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외국인투자정책 패러다임 전환

1 **(良質의 FDI 중점 유치)**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**일자리 창출*** 및 글로벌 R&D 센터 등 **혁신역량 확충****을 위한 양질의 FDI 중점 유치

* ①디자인 등 지식서비스, ②글로벌기업 지역본부, 국제기구 ③관광레져물류의료 등 지역개발형 FDI

** 글로벌기업 R&D 센터, 혁신형 창업기업, 강소기업, 신성장동력분야 FDI 등

2 **(성과中心 유치활동)** 그간 확대된 지자체(경자청) 및 대기업 등 민간 역량*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구체적인 성과창출形 IR 체제 구축**

* 商議 등 민간 투자포럼을 통한 투자협력 활성화(예: 한미투자포럼, 한중투자포럼 등)

** 例) 국가·지역·산업·테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규모 심화 IR 개최 등

※ 붙임 :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